

# 러시아어 부분격 구문 연구\*

이 인 영\*\*

## I. 문제 제기

러시아어는 영어나 우리말과 달리 부분격을 표현하는 문법 형태를 갖는다. 명백하게 부분격을 신호하는 어미라 할 수 있는 -y(/-ю)가 가능한 문장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sup>1)</sup>

- (1) Собралось народу.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 (2) Я выпил чаю. ‘나는 차를 (좀) 마셨다.’
- (3) Снегу! ‘눈(이 많네)!’
- (4) Там было много народу.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 (5) Я выпил два стакана чаю. ‘나는 두 잔의 차를 마셨다.’
- (6) Сахару было кот заплакал. ‘설탕은 고양이가 울 정도(아주 조금)이었다.’
- (7) Чаю я выпил два стакана. ‘차는 나는 두 잔 마셨다.’
- (8) Чаю нет. ‘차는 없다.’
- (9) Я не пил чаю. ‘나는 차 안 마셨다.’
- (10) Я и часу не спал. ‘나는 한 시간도 못 잤다.’

관례적으로 부분격 구문이라는 용어는 양화사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예문 (1), (2), (3))를 일컫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부분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양화사 동반 구문(예문 (4), (5))이나, “생격-주제” 구문

\* 본 연구는 2000학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단순히 형태만으로는 어미 -y는 부분격뿐 아니라 남성 및 중성 단수 여격, 여성 단수 대격, 남성 단수 처소격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동음이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부분격 신호 어미 -y는 항상 비강세로서 항상 강세를 받는 처소격 신호 어미와 구별되고, 항상 남성이라는 점에서 여성 단수 대격 신호 어미와 구별되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곤) 물질이라는 어휘 의미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남성 및 중성 여격 신호 어미와 구별된다.

(예문 (6), (7)), “부정 생격” 구문(예문 (8), (9), (10))도 논의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위의 예들은 부분격을 신호하는 가장 현저한 어미 형태인 -y로 국한되었지만 소위 생격 어미라고 불리는 -a(/-я)(남성형)나 -ы(/-и)(여성형)도 부분격 구문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11) Я купил хлеба и воды. ‘나는 빵과 물을 (좀) 샀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서 부분격의 사용은 물질명사로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부분격 구문에서는 단수형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문 (12)에서와 같이 복수형이 사용되기도 한다.

(12) (a) Людей собралос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b) Принеси яблок! ‘사과(들) 좀 가져와!’

나아가서, 규범 러시아어의 테두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셀 수 있는 명사 단수형이 부분격으로 사용된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13) Дай мне твоей книги. ‘네 책 나 좀 (잠시) 줘!’

(Thomson, 250면에서 인용)<sup>2)</sup>

인도 유럽어에 속하지 않지만 지리적 인접성 및 문화-역사적 동화를 통해 러시아어 기저층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핀란드어에서 셀 수 있는 명사 단수형에도 부분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러시아어 부분격의 범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아래 예문 (30), (32)를 보라). 만일 러시아어에서도 셀 수 있는 명사 단수형의 부분격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부분격의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이고 부분격의 기능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예문 (11)에 나타난 어미 -a와 -ы(그리고 그에 준하는 소위 여성 II 형에서의 -и, 및 복수 생격 어미들)를 부분격 표현 어미로 볼 것인가, 생격 표현 어미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대 러시아어에서 -y는 소수의 남성형 명사에만 가능하며 그것조차 -a로의 대치가 항상 가

2) 이와 유사한 예는 폴란드어에서도 발견된다. 그 예로는 Moravcsik, 265면을 보라.

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부분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 해도 그것을 생격의 하부 격으로 간주하는 대다수의 이론들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나아가서, 격과 어미 형태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셋째, 부분격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분격 구문을 양화사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시킨 전통적 접근에서 부분격은 “행위 대상의 일부” 혹은 “비한정적인 양”을 표현하는 것으로 규정된다(그러한 예로 Шведова и др.를 보라). 그러나 부분격 구문을 예문 (5)-(10)의 경우로까지 확대시키면 이러한 규정은 부적절해진다. 예컨대, 예문 (5)나 (7)은 명백히 한정적인 양을 표현하고 있으며, 예문 (10)에서는 행위 대상이 아닌 요소에 부분격이 할당되어 있다. 또한, 예문 (8)에서 대상의 부재는 대상의 일부 혹은 얼마만큼의 부재가 아니다. 위의 예문들이 보이는 한 가지 공통점은 그것들이 모두 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분격이 양을 표현한다면 그것과 양화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나아가서, (많은 연구들에서 부분격 구문과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는) 소위 “생격-주제” 구문 및 “부정 생격” 구문은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넷째, 중립적 맥락일 경우, 예문 (2)와 아래 예문 (14)는 흔히 한정성 면에서 대조되는 해석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러시아어와 같이 한정성이 문법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에서 격이 과연 한정성의 표현일 수 있는가?

(2) Я выпил чаю. ‘I drank (some) tea(부분격).’

(14) Я выпил чай. ‘I drank the tea(대격).’

만약 부분격이 비한정성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존재구문의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와는 어떤 관계에 놓이는가? 핀란드어 존재구문에서 부분격이 사용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질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15) a. Kadulla on autoja. ‘길에—있다—차들이(부분격)’

b. Kannussa on maitoa. ‘주전자 안에—있다—우유가(부분격)’

(Chesterman, 117면에서 인용)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존재구문이 부분격 구문과 유관하다면 러시아어의 경우 존재구문 NP에 부분격이 아니라 주격이 할당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한편, 예문 (16)에서와 같이 핀란드어에서는 한정적 구에도 부분격이

가능한데 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 (16) Kirjoitin juuri näitä kutsukortteja perjantaina, kun soitit.  
 I-wrote just these-PAR invitations-PAR on Friday when you called.  
 ‘금요일에 내가 전화했을 때 나는 막 이 초대장들을 쓰고 있었다.’  
 (Vainikka and Maling, 186면에서 인용)

다섯 째, 러시아어 부분격 구문에서는 특수한 맥락을 제외하곤 완료상만 가능해서 예문 (17)은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상과 부분격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sup>3)</sup>

- (17) \*Собирались людей.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핀란드어 연구서들이 부분격을 사건 행위의 진행이나 지속적 해석과 연관시키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 두 예를 비교해 보라.

- (18) a. Mikko söi kakkua. ‘미코는 케익을(부분격) 먹고 있었다.’  
 b. Mikko söi kakun. ‘미코는 케익을(대격) 다 먹었다.’  
 (Nelson, 45면에서 인용)<sup>4)</sup>

예 (17)과 (18-a)를 비교하면 러시아어와 핀란드어는 상성과 부분격의 관계에 있어 상반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두 언어 모두에서 부분격과 상성이 모종의 상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관계의 본질은 무엇이며 두 언어간의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 3) “Собиралось народу всё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에 서와 같이 “всё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점점 더 많이’”라는 부사구가 있는 경우 불완료상도 가능하다. 여기서 불완료상이 가능한 것은 전체 사건이 각 시간 단위에서의 “Собралось народу.”라는 하부 사건들의 반복적 중첩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이다.
- 4) Nelson, 141면에서는 예문 (18-a)에 대한 해석으로 ‘Mikko was eating the cake.’ 외에 ‘Mikko ate some of the cake.’를 첨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III-3을 보라. Nelson은 “kakkua”를 ‘the cake’로 번역하고 있으나 “kakkua”가 반드시 한정적 해석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Mikko ate some cake.’ 혹은 ‘Mikko was eating some cake.’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분격의 정의 및 범위, 격 할당에 대한 기존 견해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분격의 제 면모를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 격 이론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질 것이며, 아울러 부분격 구문과 존재구문과의 관계도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 II. 추상적 격으로서의 부분격

### II-1. 부분격과 생격

소위 격 언어, 즉, 격을 표현하는 문법 형태를 갖는 언어에서 격은 한 NP가 문장 내에서 갖는 통사적 및 의미적 관계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5)</sup> 러시아어에서 격에 대한 연구는 분포적 접근과 형태적 접근으로 대별된다. 부분격에 관한 한, 전통문법이 취하는 분포적 접근은 부분격 신호 어미인 -y가 가능한 위치에서는 생격 신호 어미인 -a도 항상 가능하지만 -y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y를 생격 어미의 한 이형(異形)으로 간주한다. 한편, 형태적 접근은 한 형태를 일정한 통사적 환경에서 가능한 변이로 본다면 모든 격 형태를 하나의 격의 이형들로 볼 수 있다는 논리적 궤변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분포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y라는 별개의 형태를 갖는 이상 부분격은 생격과 구별되는 독립적 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el'čuk을 보라). 이 둘의 절충안으로 -y를 부분격 어미로 인정하되 그것을 생격의 하부 격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Comrie, Jakobson을 보라).

주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견해는 두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부분격에 대한 논의가 생격과 연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이고, 격에 대한 논의의 근간을 어미 형태에 두고 있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사실상 러시아어 부분격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가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검토는 러시아어 부분격의 재조명에 적절한 시발점이 될

5) 그러한 관계는 굴절 어미나 조사 등의 문법 형태 뿐 아니라 어순이나 전치사구, 혹은 어휘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분격과 생격의 관계부터 검토해 보자. 현대 격 이론의 효시라 할 수 있는 Jakobson(1936)은 어미 -y를 Gen II로, -a(남성형), -ы(여성형)(및 -и(여성 II 형)와 복수 생격형들)을 Gen I으로 명명하고, Gen I과 Gen II 둘 다 제한적 격(Umfangskasus)으로서 방향적 격(Bezugskasus) 및 주변적 격(Randkasus)과 구별되되, Gen II는 부수적으로 형상적 격(Gestaltungskasus)이라는 점에서 Gen I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즉, Gen II는 Gen I과 동질적이되 부수적 자질 면에서 좀더 유표적인 하부 격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Jakobson(1958)에 오면, Gen II와 Gen I은 각각 [-방향성(направленность), +양화성(объемность), -주변성(периферийность)] 및 [+방향성, +양화성, -주변성]을 갖는 것으로, 즉, 방향성 자질에 의해 변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방향성, +형상성]과 [-방향성, -형상성]이 각각 [-방향성]과 [+방향성]으로 수정된 것이다. Jakobson(1958)은 Jakobson(1936)의 부가적 변별 자질을 제거해 좀더 경제적인 큐브 모델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Gen I이 Gen II보다 더 유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비직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구문론 차원에서 Jakobson의 격 이론 수정 보완한 Neidle에서는 Gen II와 Gen I이 모두 [+방향성(directional), +양화성(quantifying), -처소성(locational)]을 갖되, Gen II는 [+부분성(partial)]이라는 부가적 자질에 의해 GEN I과 변별된다. Neidle은 근본적으로는 Jakobson(1936)으로 복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Jakobson(1936)에서는 Gen I과 Gen II 모두 [-방향성]이었던 것이 그녀에서는 둘 다 [+방향성]으로 수정되는 차이를 보인다.<sup>6)</sup> 이분법적 자질들의 설정을 통해 격 체계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보여준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Jakobson의 격 이론이 격들 간의 상대적 변별을 통한 체계 구축을 우선적 목표로 한 것으로서 그의 자질들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모든 형태는 맥락 독립적 불변 의미를 갖는다는 전제는 Gen I과 Gen II가 어떤 식으로든 서로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낳았다. 그러나 “Нет чаю. / Нет чая. ‘차가 없다.’”에서와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Gen II와 Gen I이 자유 변이 관계(free variation)에 놓일 때에도 과연 이것들이 격 자질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6) Neidle은 이 점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아마도 “방향성”이라는 개념을 의미론적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구문론적으로 이해하는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 같다.

위의 세 Jakobson 식 이론들 모두 Gen I과 Gen II가 [+양화성(혹은 제한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Jakobson은 명사가 Gen I에 의해 수식될 때(앞으로는  $N_1$  Gen( $N_2$ )로 표기)  $N_1$ 은 Gen( $N_2$ )의 어떤 한 속성이나 자질 혹은 소유물을 나타내므로 Gen( $N_2$ )의 사건에의 참여는 부분적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양화적(혹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장 차원에서 Gen( $N_2$ )의 사건에의 참여는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기보다 비직접적이라고 하는 편이 좀더 정확하다.  $N_1$  Gen( $N_2$ )에서 Gen( $N_2$ )의 일차적 기능은 문장 차원에서 사건과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N_1$ 과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я купил дом Саши. ‘나는 사샤의 집을 샀다.’”에서 사샤는 내가 집을 산 행위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다. 사샤가 사건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집이 사샤의 소유물로서 사샤와 소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Gen( $N_2$ )를 잠정적으로 소유격이라 칭하겠다.<sup>8)</sup> 소유격은 구 차원에서  $N_1$ 과 양화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 때 Gen( $N_2$ )는 전체로,  $N_1$ 은 부분으로 인지된다. 즉, 여기서 [+양화성]을 갖는 것은 Gen( $N_2$ )가 아니라  $N_1$ 이다. 주목할 것은 양화성이  $N_1$ 과 Gen( $N_2$ )간의 관계에서 유관한 것이지 Gen( $N_2$ )와 V 간의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양화성]을 Gen( $N_2$ )의 자질로 본 Jakobson의 오류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데 있다.

Jakobson이나 Neidle처럼 Gen I과 Gen II 둘 다 양화성을 갖는다고 볼 경우, Q 뒤에서 Gen I과 Gen II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 “стакан чаю / стакан чая ‘한 컵의 차’”. 그러나  $N_1$  Gen( $N_2$ )에서는 Gen I만 가능하다: “цвет чая / \*цвет чаю ‘차의 색’”. 양화성에 있어서 Gen I과 Gen II가 차이가 없다면 “цвет чая”만 가능하고 \*“цвет чаю”는 불가능한 이유는 부

7)  $N_1$ 과  $N_2$  간의 관계는 구 차원의 문제이므로 상위 차원인 문장에서  $N_1$ 의 격은 구 차원에서의 양화 관계와 관계없이 문장 차원에서 그것이 갖는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Дом Петра большой. ‘표트르의 집은 크다.’”에서 “Дом”은 주어로서 주격을 할당받는다. 소유 관계가 문장 차원에서 단언되는 것일 때에는 “у Петра есть дом. ‘표트르에게는 집이 있다.’”와 같은 존재구문 형태로 표현된다.

8) 이것을 [+주변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여부는 일단 접어 두자. 방향성 논란에 관한 한, Gen( $N_2$ )의 기능이  $N_1$ 과의 소유나 소속 관계를 보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 차원에서는 [+방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문장 차원에서 사건 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 Jakobson 식 접근에서 Gen I의 방향성 자질 표기에 혼선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문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분성(혹은 형상성)이라는 부가적 자질의 차이로, 혹은 Jakobson(1958) 식으로 라면 방향성 자질의 차이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стакан чая”에서도 “стакан чаю”에서와 달리 부분성이 부재하는 것이 되거나, “стакан чаю”에는 “стакан чая”와 달리 방향성이 부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지적한 “Нет чая/чаю.”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стакан чая”와 “стакан чаю”는 자유 변이 관계에 놓이므로 여기서 “чая”와 “чаю”가 다른 격 자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부분성을 양화성의 하부 자질로 보지 않고 양화성과 동의적인 것으로 간주하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어미 형태에 의해 Gen I과 Gen II를 분류하는 Jakobson-Neidle 방식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어미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стакан чая”와 “стакан чаю”의 “чая”와 “чаю”는 둘 다 [+양화성](혹은 [+부분성])을 갖는 부분격이고, “цвет чая”의 “чая”는 [-양화성](혹은 [-부분성])인 소유격으로 구분된다.

소유격(Gen(N<sub>2</sub>))이 [-양화성(-부분성)]이라는 사실은 그것의 지시체가 “дом Саши”에서처럼 개체이거나, “цвет чая”에서처럼 총류라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sup>9)</sup> 개체는 동형의 부분들로 나뉠 수 없는 전체로 인지되므로 부분과 양립이 불가능하며, 총류는 질적 범주인 유형을 형성하므로 양과 무관하다(이 점에 대해서는 II-2를 보라).

소유격과 부분격이 동일하지 않다면 이것들이 동일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 문제는 부분격 구가 근원적으로는 양화사구로부터 나왔고, 양화사구는 다시 소유격 구로부터 발달되어 나왔다는 필자의 추정이 맞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슬라브어에서 5 이상의 수사가 명사로부터 기원한 점을 볼 때, 5 이상의 수사구는 애초에는 N<sub>1</sub> Gen(N<sub>2</sub>)로 간주되었을 것이다.<sup>10)</sup> 이 단계에서는 수가 N<sub>1</sub>의 자리를 차지하며 의미적 핵으로 작용한다.<sup>11)</sup> 그러나 그것이 명사 N으로부터 독립해 개별적 품사 Q로 발전하면서 그것은 (원래 1-4까지의 수가 그러했듯이) 한정사처럼 인식되게 되어 Q Gen(N<sub>2</sub>)의 Q는 한정사로, Gen(N<sub>2</sub>)는 의미적 핵으로 재해석되어진다. (이때 Q는, 물론, 수사 뿐 아니라 비(非)수사적 양화사도 포함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sup>12)</sup> Gen(N<sub>2</sub>)가 의미적 핵으로 재해석됨에 따라 그것은 한정사인 Q 없

9) “богиня красоты ‘미의 여신’”에서와 같이 추상명사가 오는 경우도 총류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

10) 여기서는 일단 5 이상의 수사만을 고려하겠다.

11) 아직도 тысяча ‘1000’, миллион ‘1,000,000’ 등은 명사처럼 행동함을 보라.



이 독립적 존립이 가능해지고 Q를 갖지 않는 Gen(N<sub>2</sub>)는 P(N), 즉, 부분격으로 인식되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부분격을 신호하는 형태 -y는 부분격의 독립적 위상이 확보된 후 이에 대한 형태적 지지를 위해 독자적 형태의 필요성이 생겨나면서 이미 쇠퇴한 u-어간 굴절형의 생격 신호 어미 -y를 차용하여 생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3)</sup> -y의 적용이 남성형 물질(및 집합)명사로 국한된 것은 u-어간에 속하는 어휘들이 남성형이었다는 점, 그리고 물질(및 집합)명사가 P(N)에 가장 적합한 어휘 유형을 형성한다는 사실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P(N)을 신호하는 형태가 Q 뒤의 N으로까지 역(逆) 확산되면서 Q Gen(N)이 Q P(N)으로 재해석이 가능해지는 단계이다. 이러한 역 확산은 우선 물질(및 집합)명사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Было народу.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대부분의 맥락에서 쉽게 “Было много народу.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를 가능케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много народу”가 Q P(N)으로 보아질 수 있다면, 이로부터의 연상으로 “много студентов ‘많은 학생들’”도 (-y가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보아질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셀 수 있는 명사가 수사와 함께 오는 경우(예: пять студентов)에도 동일한 연상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핀란드어에서는 수사 뒤에 반드시 부분격이 오는 점을 참조하라.)

그러나, 양화사구는 Q가 격 지배에 있어 통사적 핵으로 남아 있는 점이나, Q의 격 지배가 문장 차원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아직도 N<sub>1</sub> Gen(N<sub>2</sub>)적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sup>14)</sup> 양화사구와 부분격 구 간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양화사, 특히 수사 뒤에서는 가령 “수사격”과 같은 별개의 범주의 설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양화사구와 부분격 구 간의 긴밀한 유대를 고려할 때, 그러한 분류는 경제적으로나 직관적으

12) 사격에서는 수사구의 N이 통사적으로도 핵이 되었음을 보라: с пятью студентами.

13) 이 밖에도, 이미 쇠퇴한 u-어간의 활용어미 형태가 새로운 격 어미에 차용된 예로 처소격 신호 어미 -y를 들 수 있다. из дому ‘집으로부터’, без толку ‘쓸데없이, 무턱대고’와 같은 관용적 표현의 경우는 전치사 지배에 의해 부분격이 할당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u-어간 생격 신호 어미의 잔재로 보는 편이 나올 것 같다.

14) 양화사구가 양면성을 띠는 것은 맥락에 따라 그것의 N 지시체가 존재가 전제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예컨대, “У меня есть пять книг. ‘내게는 다섯 권의 책이 있다.’”에서 책은 존재가 전제되지 않지만, “당신은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У меня пять книг. ‘내게는 다섯 권의 책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책은 존재가 전제된다.

로나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양화사구의 N이 P(N)이기는 하되 전형적 P(N)으로부터 벗어나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편을 취하기로 하였다.

## II-2. 부분격의 의미자질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러시아어 부분격에 대한 논의는 예외 없이 어미 형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격을 문장 내에서 NP가 갖는 통사적 및 의미적 관계를 보이는 기능으로 이해한다면 격과 형태는 근본적으로 별개의 차원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기능적 관점은 격을 어미 형태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격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의미의 격은 흔히 어미 형태에 입각한 형태론적 격(morphological case)과 구별해 추상적 격(abstract case)이라 칭해진다. 두 차원의 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я увидел Ивана. ‘나는 이반을 보았다.’”에서 “Ивана”의 형태론적 격은 생격으로, 추상적 격은 대격으로 간주된다(Babby(1991), 5면을 보라). 그러나 “형태론적 격이 생격이다.”라는 말은 -a라는 어미가 남성 단수 생격을 신호하는 전형적 형태라는 말의 관계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마치 -a를 주격으로 갖는 남성형 어휘들—예: воевода, дядя—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a를 통상 여성 단수 주격 어미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형태론적 격이라는 것은 추상적 격을 신호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다. 격은 형태를 통해 표현되므로 격과 형태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남성 물질 명사와 결합하는 -y가 부분격을 신호하듯이, 어떤 특정한 형태는 특정한 격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격이 -y 뿐 아니라 -a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처럼 격과 형태간에는 일 대 일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어의 주어나 목적어 명사에서처럼 격을 표현하는 형태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격이 반드시 형태에 의해 변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본 연구에서 격이라 함은 추상적 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추상적 격에 대한 연구는 GB의 틀에서 출발하였다. Chomsky(1981)는 음성적 형태를 갖는 모든 어휘적 NP는 격을 갖는다고 전제하고—Case Filter—, 지배 관계로써 격 할당을 설명하였다. 예컨대, 주격은 INFL의 지배를 받는 NP에 할당되고, 대격은 V의 지배를 받는 NP에 할당된다. 추상적 격의 설정은 격 신호 형태가 없는 언어에서도 문장의 통사적, 의미적 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격을 신호하는 형태가 있는 언어의 경우 격이 형태로부터 과연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가? 모든 언어는 동일한 수와 동일한 내용의 추상적 격들을 갖는가, 아니면 추상적 격은 개별 언어에 따라 그 수와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개별 격들 간에는 위계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부분격의 경우 참예하게 드러난다. 부분격을 신호하는 명백한 형태가 존재하는 언어(예: 핀란드어)가 주 대상어인 연구에서는 추상적 격으로서 부분격이 인정되는 반면, 그러한 형태가 없는 언어(예: 영어)가 대상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뚜렷하다. 부분격 신호 형태가 존재하되 제한적인 러시아어의 경우에는 부분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 해도 생격의 하부 격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룬다. 부분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상어에 따라 상당히 차이나는 정의가 주어지거나 다른 격들과의 관계가 전혀 다르게 규정되기도 한다.

추상적 격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격이 언어학자들의 픽션이 아니라 언어 구사자들에게 실재하는 능력임은 언어습득에 관한 실험들에서 입증되고 있다(Babyonyshev를 보라). 추상적 격이 어떤 식으로든 형태와 연관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형태론적 신호가 추상적 격을 인정할 근거를 제공한다고 해서 형태론적 신호가 없을 경우 추상적 격도 부재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격과 형태의 관계는 질병과 증상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질병은 증상에 의해 신호되지만 유사한 증상을 갖는 다른 질병들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질병은 증상에 의해 추정될 수는 있지만 정의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격은 형태에 의해 신호될 수 있지만 동일한 형태를 갖는 상이한 격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형태는 격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형태론적 신호는 개별 언어나 개별 화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해지는 선택 사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부분격 신호 형태의 부재는 부분격 부재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부분격이 반드시 유일한 특정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부분격은 전체와 부분이라는, 인식에 있어 가장 원초적인 대립의 한 언어학적 도상(icon)이다.<sup>15)</sup> 전체와 부분에 대한 이해에는 본질적으로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전체를 개체로 인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를 유형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개체의 부분은 결코 개체와 동일한 피표시물(denotatum)일 수 없는 반면, 유형의 부분은 유형과 동일한 피표시물들로 구성된

15) 또다른 도상으로 동사의 상을 들 수 있다. III-3을 보라.

다. 예컨대, 책상 다리는 책상이라는 개체의 일부분으로서 그것 자체가 책상과 동일하지는 않은 반면, 어떤 한 사자는 사자라는 유형에 속하는 한 부분을 이룬다. 개체는 나뉠 수 없거나, 나뉜다 해도 상이한 부분들의 결합에 의한 닫혀진 집합체인 반면, 유형은 계열을 형성하는 동일한 부분들의 열린 집합이다. 개체는 결합적 부분성(syntagmatic partitivity)을, 유형은 계열적 부분성(paradigmatic partitivity)을 취한다. 부분적 자질로서의 부분성(=[+P])은 계열적 부분성에 해당한다.<sup>16)</sup> “Он выпил вина. ‘그는 포도주를(부분적) 좀 마셨다.’”에서 “вина”는 어떤 특정한 개체로서의 포도주의 일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유형에 속하는 임의의 양의 포도주를 뜻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Он выпил (это) вино. ‘그는 (그) 포도주를(대적) 마셨다.’”에서 “вино”는 개체로서의 포도주를 지칭하며, “Он любит вино. ‘그는 포도주를(대적) 좋아한다.’”에서 “вино”는 유형으로서의 포도주를 지칭한다.

II-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부분성([+P])과 양화성([+Q])은 상호 대체적이다. 본 연구에서 부분적의 자질을 [+Q] 대신 [+P]로 규정한 것은 어휘 차원에서 [+Q]를 갖는 (그러나 문장 차원에서는 비양화적일 수 있는) 양화사 Q와의 차별화를 위해서이다.<sup>17)</sup> [+P]는 문장 차원의 [+Q]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16) 결합적 부분성은 N<sub>1</sub> Gen(N<sub>2</sub>)나 탈격(ablative)의 형태로 표현된다: “I read some part of the book.” “Многие из этих студентов погибли. ‘그 학생들 중 많은 수가 죽음을 당했다.’” Kornfit에 의하면 터어키어에는 양화사를 동반하지 않는 “탈격 부분구(Partitive Ablative)”도 존재한다. 영어권에서는 흔히 이러한 구문들은 “부분구문(Partitive Construction)”이라 칭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부분적 구문”과는 다른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부분성이란 함은 계열적 부분성을 칭한다.

17) 문장 차원에서 비양화적인 양화사구의 예로는 “Эти пять студентов занимались очень усердно. ‘이 다섯 학생들은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를 들 수 있다. 여기서 “эти пять студентов”는 양화사를 포함하지만 문장 차원에서는 QP가 아니라 주격을 할당받는 NP(혹은 DP)로 작용한다.

18) 필자의 견해와 달리, Bailyn은 [+P]와 [+Q]를 별개의 것으로, Neidle은 [+P]를 [+Q]의 하부 자질로 간주한다. 그들 둘 다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숙고에 바탕하고 있다기보다 부분적과 “부정 생격”을 분리시키는 전통, 혹은 Jakobson 식 Gen I, Gen II의 전통이 갖는 관성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 이들에 대한 본격적 비판은 하지 않겠다. [+P]를 [+Q]의 하부 자질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는 II-1을 보라.

부분격은 어떻게 할당되는가? Chomsky(1981)에 의하면, 추상적 격에는 S-구조에서 통사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적 격(structural case)과 개별 동사의 하부 범주 자질에 명기되어 이미 D-구조에 존재하는 내재적 격(inherent case)이 있다. (이것들은 다른 접근에서는 각각 위상적 격(configurational case) 및 어휘적 격(lexical case)에 상응한다.) 부분격은 때로는 구조적 격으로, 때로는 내재적 격으로 취급된다(전자의 예로는 러시아어의 경우 Bailyn, Pesetsky, 핀란드어의 경우 Vainikka and Maling을 보라. 후자의 예로는 Belletti를 보라). 그런가 하면, Babby(1986)은 구조적 격과 내재적 격이라는 통사적 차원의 격 외에 의미적 차원의 격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그 예로 러시아어의 부분격을 꼽는다. 의미적 격은 문장 전체의 의미 해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격으로서 구조적 격이나 내재적 격과 달리 화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당되어진다.

러시아어의 부분격은 과연 구조적 격인가, 내재적 격인가, 의미적 격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그 어느 것도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미적 격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양화사구나 “부정 생격”에서는 부분격이 구조적 격처럼 보이는 반면, просить ‘요구하다’, искать ‘찾다’, желать ‘바라다’, ждать ‘기다리다’와 같은 동사군과 함께 나타나는 부분격은 내재적 격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과 달리, 전형적인 부분격은 특정한 구조적 위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동사군으로 제한되지도 않는다. 러시아어의 부분격이 Spec, V에서 할당되는 위상적 격임을 주장하는 Bailyn도 부분격을 그것과 동일한 위상에서 할당되는 대격이나 부정 생격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상위 노드인  $Pr^0$ 가 [+P]일 때로 제한된다는 조건을 첨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부분격의 할당에는 결국 의미적 고려가 배제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부분격의 우선적 기능이 특정한 문법 기능이나 위상을 신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문법 기능이나 위상을 갖지만 양과 무관한 경우와 의미적 차별화를 이루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분격은 우선적으로 의미적 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부분격이 구조적 격이라면 특정한 위상에서는 부분격의 할당이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내재적 격 또한 특정 동사 뒤에서 필수적으로 할당되므로 그것으로는 화자의 의도에 의해 선택되는 부분격을 설명할 수 없다. 구조적 격 가설이 부분격을 지나치게 탈의미화시켰다면, 내재적 격 가설은 그것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시켰다.

부분격이 러시아어에서보다 좀더 빈번히 구조적 격 혹은 내재적 격으로 작

용하는 핀란드어에서도 부분격은 여전히 의미적 격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 예 (19-a)와 (19-b)는 둘 다 긍정 의문문이지만 (19-a)는 (19-b)와 달리 마우노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분격이 사용된다. 부분격이 완전히 구조적 격이라면 이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19) (a) Oletko tavannut Maunoa?

‘당신은 마우노를(부분격)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제 생각엔 만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b) Oletko tavannut Maunon?

‘당신은 마우노를(대격)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제 생각엔 만나셨던 것 같은데요.)’

(Mitchell, 197면에서 인용)

엄밀히 말하자면, 부분격은 개별 언어나 개별 맥락에 따라 의미적 격과 구조적 격, 혹은 의미적 격과 내재적 격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격을 의미적 격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의미적 격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의 구조적 격 혹은 내재적 격으로의 전이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거꾸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미적 격이 특정 동사와 항상 함께 사용되다 보면 내재적 격으로 전이될 수 있고, 특정 위치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되다 보면 구조적 격으로 전이될 수 있다. просить 류의 동사군 유형이 전자의 예라면, 양화사구는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부분격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분격 동반 동사군이나 양화사구는 주변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분격 동반 동사군은 매우 소수이고 급격히 쇠퇴하고 있으며, 양화사구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는 점을 참조하라.

의미적 격으로서의 부분격은 무엇에 의해 할당되는가? 필자는 의미적 격이 문장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적 운용자(operator)에 의해 할당된다고 본다. 부분격은 양화가 커뮤니케이션 의도에 포함될 때 문장에 부가되는 운용자—필자는 그것을 P-운용자라 부르겠다—에 의해 [+P] 자질을 부여받음으로써 할당된다. [+P] 자질이 부여된 NP는 그것의 피표시물이 지칭하는 유형의 일부 구성원으로 인지된다. P-운용자 가설은 구조적 격 가설이나 내재적 격 가설과 달리 부분격이 화자의 의도에 따른 선택적 격임을 보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P-운용자에 대해서는 추후 III-3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 II-3. 부분격과 주격

추상적 격과 어미 형태간에 일 대 일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어 부분격 구문의 범위는 크게 확대되어진다. 부분격 구문의 유형을 예시한 (1)-(12)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부분격 구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로 존재구문을 들 수 있다.<sup>19)</sup> 존재구문을 부분격 구문으로 보게 되면 두 구문간의 직관적인, 그러나 설명되지 못했던 유사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지금까지 러시아어 존재구문이 부분격 구문과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존재구문의 NP가 주격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기존 학설들은 존재구문의 NP가 주격이라는 점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이루고 있다. 논란은 그것이 주어냐, 목적어냐에 집중되었다. 존재구문의 NP가 격이나 일치 면에서는 주어처럼 보이지만 어순이나 화제구조, 재귀 조정에 있어서는 목적어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주격과 주어의 동일화가 불문율로 되어 있는 전통문법에 대하여 비대격 가설(Unaccusative Hypothesis)의 영향을 받은 신 이론들은 존재구문의 NP가 적어도 심층에서는 목적어임을 주장한다. (Chvany, Babby(1980) 등을 보라). 핀란드어 존재구문에서 인칭대명사가 사용될 경우 대격 신호 어미가 부가되는 점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20) Sinulla on minut. '네게는—있다—내가(대격)'

(Nelson, 143면에서 인용)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존재구문의 NP가 목적어라는 주장의 확고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존재구문 NP가 목적어라면 핀란드어에서 인칭대명사가 아닌 NP에는 왜 대격 신호 어미가 부여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sup>20)</sup>

19) 예문 (4)와 (8)은 사실상 이미 존재구문이라 할 수 있으며 비대격 구문인 예문 (1)도 넓게는 존재구문의 영역에 포함된다.

20) 이와 반대로, 만약에 존재구문의 NP가 목적어가 아니라면 인칭대명사에서는 왜 대격 신호 어미가 부가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어떻게 보더라도 인칭대

“호칭 주격”이나 “주제-주격”, “술부 주격”이라 불리는 것들도 비(非)주어 주격의 존재를 주장하는데 한 몫을 한다. 실제로, 고대 러시아어나 북부 러시아 방언, 그리고 핀란드어에는 “주격 목적어”라 불릴 만한 형태가 존재한다.

(21) а. ино дать на него грамота судная по тому послушству.

(Акты арх. экс. по. 92, 1471)

‘그 증언에 의거해 그에게 법적 증서를 주어야 하므로’

(고대 러시아어) (Timberlake, 8면에서 인용)

b. Земля пахать. ‘땅을 갈아야 한다.’ (북부 러시아 방언)

c. Kalakukko syödään.

‘생선 파이가 먹어지고 있다.(=누군가가 생선 파이를 먹고 있다)’

(핀란드어 무인칭 피동구문) (Nelson, 48면에서 인용)

위 예문들에서 “грамота судная”, “Земля”, “Kalakukko”는 소위 “주격 목적어”에 해당한다. 위 구문들의 공통점은 표층구조에 외부 논항에 해당하는 NP가 부재한다는 것이다. 즉, 소위 “주격 목적어”가 사용된 구문들은 행위주와 피의체를 갖는 이 논항 술어이되 표층에서는 피의체 NP만 표현되면서 두 논항을 변별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존재구문이나 비대격 구문은 애초부터 단일 논항 술어로서 외부 논항을 갖지 않는다. 이 점에서 존재구문이나 비대격 구문은 (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무인칭 피동구문과 구별되며 이 점은 존재구문의 NP가 목적어라는 주장에 반대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핀란드어 무인칭 피동구문에는 자동사를 포함해 모든 동사가 가능하나 비대격 동사만은 불가능한 사실—\*“Asemalle tultiin juna. ‘역으로—들어왔다(피동)—기차가””(Nelson, 50면에서 인용)—은 비대격 구문과 피동구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비대격 가설이 오류임을 보여 준다(이 점에서 비대격 가설을 비판한 Zaenan and Maling을 보라).

지금까지의 논지대로라면 존재구문의 NP는 주어라고 할 수도, 목적어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애매성은 존재구문의 NP가 주격이 아니라 부분격이라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부분격은 주격이나 대격과 달리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법적 기능을 보이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는 격

---

명사와 비(非)인칭대명사는 서로 다른 체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문제에는 능격성(ergativity)이나 비행위주성 등이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각주 24)를 보라.



이 아니므로 이 점에 대해서 애매할 수 있다.

부분격 NP가 명백한 목적어나 명백한 주어와 다르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입증된다. “я выпил чаю.”에서 “чаю”는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일반적 목적어와 달리 피동화가 불가능하며(\*“Чаю было выпито.”), “Собралось людей.”와 같이 부분격 NP가 비대격 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일반적 주어와 달리 동사와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부분격 NP가 유형의 일부 구성원으로서 개체나 유형과 달리 마치 비(非)논항처럼 인식되면서 동사에 병합(incorporation)되는 것에 기인한다. 병합에 의해 타동성이 약화된 2항술어는 1항술어처럼 피동화가 불가능해지고, 1항술어는 무인칭구문에서와 같이 제언적(thetic) 성격을 띠게 된다. 주어설과 목적어설은 둘 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주격 목적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견해는 주격을 무(無)격(non-case)—혹은 디폴트 격—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어휘적 NP는 격을 갖는다는 Case Filter는 옳지 않은 것이 된다. 제로 어미 형태가 주격을 신호한다는 전제는 제로 형태가 나타나는 모든 경우를 주격으로 간주케 했고 따라서 일종의 “주격 만능주의”를 초래했다. 그러나 “제로 형태 = 주격”이라는 등식은 언어 보편적 현상이 아니다. 우리말의 경우 주격은 대개 제로가 아니라 “이/가”라는 형태로 신호된다. 그런가 하면 호칭의 경우 “야”라는 조사 외에 제로 형태(“철수!”)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디폴트인 것은 주격이 아니라 제로라는 어미 형태라고 해야 옳다.<sup>21)</sup> 격은 그것을 신호하는 특정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 좀더 경제적인 디폴트 어미를 사용할 수도 있다.<sup>22)</sup> 러시아어에서 주격을 신호하는 어미는 제로로서 디폴트 어미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지만 모든 언어에서 주격 신호 어미와 디폴트 어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디폴트 어미는 주격 이외의 격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주격 목적어”라 불리는 것은 실은 주격이 아니라 디폴트 어미를 취하는 대격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주격이 일치를 동반하는 것과 달리

21) 우리말에서 호칭이 호격 신호 형태 뿐 아니라 제로라는 주격 신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주격의 또 다른, 좀더 보편적인 신호 형태인 “이/가”는 왜 호칭에 사용될 수 없으며 유독 제로 형태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22) 디폴트 형태가 사용된 예는 이야기체 시제(narrative tense)나 인도 유럽어 초기의 injunctive에서도 발견된다.

“주격 목적어”에서는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러시아어 호칭에서 주격이 사용된다는 주장도 이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호격이되 디폴트 어미를 취한 것이다. 호격 신호 어미가 사라지게 된 것은 러시아어에서 점차 격을 신호하는 유 어미 형태가 줄어들고 디폴트 어미의 사용이 증가함을 보여준다.<sup>23)</sup>

그렇다면 러시아어 존재구문의 NP도 주격이 아니라 부분격이 디폴트 어미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sup>24)</sup> 그러나 이 경우 일치의 문제가 대두된다. 비일치가 진정한 주격이 아니라 증거라면 존재구문에서는 일치가 일어나므로 주격이 아니라는 근거가 사라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재구문의 파생 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존재구문은 심층 단계에서는 부분격 구문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존재구문의 NP는 명실공히 부분격이며 일치는 일어나지 않는다. 복수형 및 물질명사가 사용된 핀란드어 존재구문(예문 (15))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다음 단계는 부분격이되 디폴트 어미가 사용되는 단계이다. 핀란드어 존재구문에서 소위 “비일치 주격”이 사용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2) Koulussa on uudet opettajat.

‘학교에는—계시다(3인칭 단수)—새 선생님들(복수).’

‘학교에는 새 선생님들이 계시다.’ (Nelson, 55면에서 인용)

23)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어가 종합어로부터 분석어로 이행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주제-주격” 또한 디폴트 어미를 취한 주제격으로 볼 수 있다. (주제격의 존재는 우리말에서 주제격 조사 “은/는”의 존재로 확인된다.) 호격이나 주제격이 디폴트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그것들의 구문적 독립성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술부-주격”은 주어의 격 복사로써 설명 가능하다.

24) 핀란드어 존재구문에서 인칭대명사의 경우 대격 신호 어미 -t를 취하는 것은 인칭대명사가 그 밖의 명사들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갖는 것과 연관되어 보인다. 인칭대명사의 경우 존재구문에서 부분격이 아니라 대격을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층에서는 부분격을 취하되 어떠한 과정을 거쳐 대격으로 재해석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어느 경우이건 존재구문에서 인칭대명사, 특히 1, 2 인칭대명사의 사용은 구문이 요구하는 존재의 단언과 인칭대명사가 갖는 존재의 전제간의 갈등으로 인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것이 사용 가능한 경우는 존재가 전제되는 화자, 청자라는 주제로서가 아니라 (화자, 청자와 동일한 피표시물을 갖되) 존재가 단언되는 객체로서이다. 그렇게 본다면 대격 신호 어미는 존재구문의 인칭 대명사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칭대명사가 아닌 명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다.

예문 (22)에서 학교와 선생님은 분리 불가능한 소유(inalienable possession) 관계를 형성하면서 “opettajat ‘선생님들’”의 존재는 전제되고 수식어인 “uudet ‘새’”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 점에서 예문 (22)는 부분격 신호 어미를 취하는 예문 (15)에 비해 덜 전형적인—혹은 덜 양화적인—존재구문이라 할 수 있다.<sup>25)</sup> 이 경우, 덜 양화적이라는 환경적 요소가 디폴트 형태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어에서도 구어에서는 이러한 불일치 형태가 발견된다.

(23) У меня было свой доход.

‘내게는—있었다(중성 단수)—자신의 소득(남성 단수)’

(Земская и Капаназде, 84면에서 인용)

러시아어에는 예 (22)와 같은 약한 존재구문의 경우 *есть*의 생략이라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디폴트 형태의 전형적 존재구문으로의 확산이 핀란드어에서 보다 좀더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디폴트 형태와 주격을 신호하는 어미 형태의 동일성으로 인해 디폴트 형태는 가설생성(abduction)이라는 추론 과정에 의해 마치 주격 인 것처럼 재해석되어진다. 이것이 파생의 마지막 단계로 여기서는 제 2 단계에서와 달리 일치가 일어난다.<sup>26)</sup>

Было людей. ⇒ Было люди. ⇒ Были люди.

존재구문 NP의 격을 주격으로 보는 견해는 제 1 단계와 제 3 단계간의 연관성을 보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격 주어설은 제 2 단계의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한편, 주격 목적어설은 제 3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어

25) 이러한 경우를 필자는 약한 존재구문이라 부르겠다. 러시아어 약한 존재구문에서는 *есть*가 생략된다.

26) 지금 설명하고 있는 파생 과정은 일종의 사고 실험이므로 각 단계가 모두 표층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라. 디폴트 형태의 사용, 나아가서 주격으로의 재해석은 셀 수 있는 명사 단수형으로부터 복수형으로, 그 다음 물질명사의 순서로 확산된다. 이 순서는 개체로 인식되기 쉬운 정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 단수형에서만 주격으로의 재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도 인칭대명사 외에는 3인칭만 나타나므로 일치냐, 비밀치냐가 실은 모호하다.) 물질명사의 경우에는 부분격 신호 어미가 사용되며, 복수형은 예문 (22)가 보여 주듯이 때에 따라 디폴트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 점을 참고하라.

와의 일치라는 러시아어에는 생소한 예외를 마련해야 한다.

제 1 단계와 제 3 단계를 연계시키는 다른 해결책으로 격의 이중 할당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제 3 단계를 D-구조에서 부분격이 할당된 NP에 S-구조에서 다시 구조적 격인 주격이 할당된 것으로 보자는 것인데—이와 유사한 견해로 Nelson과 Belletti를 보라—, 이 경우 제 2 단계의 위상이 애매할 뿐 아니라 이중 할당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 및 환경도 분명치 않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어 존재구문은 부분격 구문과 동일한 심층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양화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경우 디폴트 형태를 거쳐 주격으로 재해석된 형태가 부분격 형태를 대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원래의 부분격 형태를 사용하는 구문은 상대적으로 양화성이 강조된 유표적 구문으로 인식되어진다. “Было людей.”가 대부분의 맥락에서 “Были люди.”와 달리 “많은”이라는 뉘앙스를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 III. 기존 가설 비판

#### III-1. 비한정성 가설

비대격 구문에서도 부분격은 주격으로의 재해석이 가능하다.

(24) a. Собралось студентов.

‘모였다—학생들(부분격)’ ‘학생들이 (많이) 모였다.’

b. Собрались студенты.

‘모였다—학생들(주격)’ ‘학생들이 모였다.’

(24-b)를 다음과 비교해 보자.

(25) Студенты собрались.

‘학생들(주격)—모였다’ ‘학생들이/학생들은 모였다.’

(25)의 “학생들”이 한정적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24-a), (24-b)에서 “학생들”은 비한정적 해석만 갖는다. 부분격으로부터 재해석된 주

격 NP가 한정적 해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부분격과 비한정성 간의 상관성을 시사한다.

부분격과 비한정성의 관련에 본격적으로 주목한 연구로는 Belletti를 들 수 있다. 이탈리아어 비대격 구문을 다루면서 그녀는 부분격이 비대격 동사에 의해 할당되는 내재적 격이고 부분격 NP는 지시체의 비한정성을  $\theta$ -역으로 갖는다고 주장했다. 부분격을 신호하는 어미 형태가 부재하는 언어에서 부분격의 설정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부분격과 비대격 동사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녀의 연구는 서구의 격 이론을 일보 진전시키는 개가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격을 지시체가 비한정적인 NP로 국한되는 내재적 격으로 간주한 점은 수정되어야 한다. 부분격을 이런 식으로 제한시키게 되면 고유명사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분격이 할당될 수 없으므로 비대격 구문에서도 부분격의 할당은 선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내재적 격의 정의에 위배되는 모순을 낳는다. 예 (16)은 핀란드어에서 부분격과 지시체의 한정적 해석이 병존 가능성을 보여준다.(이 점에서 Belletti를 반박하는 예로 Vainikka and Maling과 Hoop를 보라.)

러시아어나 핀란드어에서 한정성은 특정한 형태로 신호되는 것이 아니라 어순이나 억양 그 밖의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표현되고 해석된다. 격이 그러한 수단들 중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지시체의 한정성이 격의 자질일 수는 없다.

비한정성 가설을 주장하는 측이나 그와 반대로 부분격과 비한정성 간의 무관성을 주장하는 측이나 양 쪽 모두의 과오는 부분격의 특질로서의 비한정성이 지시체 차원의 비한정성이 아니라 담화-화용 차원에서의 비한정성이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분격의 의미자질인 [+P]가 개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유형의 일부 구성원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유형이 동일한 피표시물들의 계열로 구성된 열린 집합으로 정의된다면, 일반적으로는 개체로 인지되는 고유 이름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을 형성하는 구성원으로 인지될 수 있다. 개체로서의 Giovanni는 Giovanni라는 동일한 피표시물들로 나뉠 수 없지만, 유형으로서의 Giovanni는 시공간에 따라 무수한 Giovanni라는 구성원들로 구현된다. 지시체 차원에서 고유 이름은 존재가 전제되는 개체일 수밖에 없지만, 담화-화용 차원에서는 그것의 존재가 새로운 정보로서 단언될 수 있고 존재의 단언에는 시공적 구현이 필수적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유 이름이 유형의 한 구성원으로 간주되게 된다.<sup>27)</sup> 이렇게 보면

“È arrivato Giovanni. ‘지오반니가 도착했다.’”의 경우에도 Belletti처럼 주격을 상징하지 않고 “È arrivato un uomo. ‘한 사람이 도착했다.’”에서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주격으로 재해석된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는) 부분격을 상징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유 이름이 담화-화용 차원에서는 개체가 아니라 유형의 일부 구성원으로서 비한정적인 것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총류는 외연은 비한정적이지만 담화-화용적으로는 한정적인 것으로 인지된다. 예컨대, “사자는 밀림의 왕이다.”에서 총류적 해석을 갖는 “사자”의 외연은 잠재적 세계의 사자까지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므로 비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담화-화용적으로는 (담화 첫 머리라 하더라도) 청자에게 이미 알려진 한정적인 유형으로 간주된다.<sup>28)</sup> “Я люблю пить чай. ‘나는 차(대격) 마시기를 좋아한다.’”는 옳은 문장이지만 \*“Я люблю пить чаю. ‘나는 차(부분격) 마시기를 좋아한다.’”가 곤란한 이유는 여기서 “차”가 총류적 해석을 갖는 유형으로서 양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분격은 지시체의 비한정성이 아니라 화용적 비한정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유 이름이더라도 부분격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반면, 총류는 화용적으로 한정적이므로 부분격과 상호 배타적 관계에 놓인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생격-주제” 구문에서 “생격-주제”가 필자의 견해처럼 부분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주제”이므로 화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부분격 NP의 지시체는 화용적으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 경우에도 여전히 화용적으로 비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다음을 비교해 보자.

(26) Девушки — они красивые. ‘소녀들 — 그들은 아름답다.’

(27) Девушек было пять. ‘소녀들은 다섯 명이었다.’

예문 (26)은 소녀라는 총류적 유형에 관하여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질적 자질을 갖음을 진술하는 “주격-주제” 구문이다. 반면, 예문 (27)은 소녀라는 유

27) 존재구문에는 한정적 NP가 불가능하다는 “한정성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위 “리스트적 해석”을 가질 때에는 고유명사가 가능함과 비교해 보라: “У тебя же есть Лена. ‘네게는 레나가 있잖아.’”

28) 우리말에서 총류 명사에는 주제 조사인 “은/는”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정보-주어임을 신호하는 “이/가”는 불가능함을 참조하라.

형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유형에 속하는, 주어진 시공간에서 구현된 일부 구성원인 소녀들에 대해 양적 진술을 하는 “생격-주제” 구문이다. 예문 (27)이 “Сколько там было девушек? ‘그곳에는 소녀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격-주제”인 “소녀들”이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주어진 것은 “소녀들”이라는 언어적 표현, 혹은 지시체가 소녀라는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뿐이며, 주어진 담화맥락에서 유관한 소녀들은 소녀라는 유형에 속하는 일부 구성원으로서 그 자체의 정체가 파악된 것은 아니다. 정체 파악은 청자가 그것을 한 덩어리, 전체—즉, 개체나 유형—로 인지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개체는 양적 측면이 알려져 있거나(각주 17을 참조하라) 양과 배타적이고, 유형은 양과 무관하므로 화용적으로 한정적인 것에 대한 양적 진술은 중어법(tautology)이 되거나 논리적 넌센스가 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생격-주제”는 존재가 전제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화용적으로 비한정적이다.

이상을 볼 때, 부분격이 비한정성과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나 부분격이 지시체의 비한정성이라는  $\theta$ -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는 둘 다 부분격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견해는 부분격을 구조적격으로, 후자의 견해는 부분격을 내재적 격으로 간주토록 이끌었다. 부분격의 특성이 화용적 비한정성에 있다는 사실은 부분격이 지시체의 비한정성과는 무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구조적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에 따라 화용적으로 결정되는 의미적 격임을 뒷받침해 준다.

### III-2. (공(空)) 양화사 가설

Pesetsky는 부분격과 “부정 생격”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다수의 견해—Klenin, Neidle, Bailyn, Borovikoff 등을 보라—에 반대하여 (양화사를 동반하지 않는) 전형적 부분격과 “부정 생격”이 둘 다 양화사 부분이 비어 있는, 즉, 공(空) 양화사를 갖는 양화사구(QP)이므로 한 범주로 묶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과연 이것들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양화사구인가?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자. 부분격과 “부정 생격”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한다(Neidle, Borovikova를 보라). 첫째, 부분격은 긍정문에서도 나타난다. 둘째, 부분격은 “부정 생격”과 달리 사용 가

능한 동사와 명사가 모두 제한적이다. 셋째, 부분격은 “부정 생격”과 달리 절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용될 수 없다. 넷째, “부정 생격”은 한정적 NP와도 사용 가능하다. 등등. 그러나 “부정 생격”을 부정문에서의 부분격으로 본다면 첫 번째 제한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두 번째 제한은 부정 자체가 갖는 양화적 의미 때문에 긍정문에서와 달리 동사나 명사의 어휘적 의미와 무관하게 부분격 할당이 가능한 반면, 긍정문에서는 동사나 명사의 어휘 의미가 양화성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제한은 부정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부정문에서는 부분격 NP가 부정의 범위 내에 들어 있으면 절의 차원을 넘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정적 지시체도 부분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네 번째 근거도 사라진다.

부정은 부정의 범위 및 그것과 P의 영역과의 관계에 따라 질적 부정과 양적 부정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Слоны не едят мясо. ‘코끼리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에서 총류적 해석을 받는 “코끼리들”은 부정의 범위 밖에 존재하며 진술은 코끼리들에 대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질적 부정을 단언한다. 반면, “Нет слонов. ‘코끼리들이 없다.’”에서 “코끼리들”은 부정의 범위 안에 들어 있고 부정의 범위는 다시 P의 영역 내에 있으므로 진술은 코끼리라는 유형에 속하는 구성원이 주어진 시공간에 한 마리도 없다는 양적 부정으로 간주된다. 다음을 보자.

- (28) a. Я не выпил<sup>1</sup> чай. ‘나는 차를(대격) (다) 마시지 않았다.’  
 b. Я не пил<sup>1</sup> чай. ‘나는 차를(대격) 마시지 않았다/않고 있었다.’  
 c. Я не выпил<sup>1</sup> чаю/чая. ‘나는 차를(부분격) 마시지 않았다.’  
 d. Я не пил<sup>1</sup> чаю/чая. ‘나는 차를(부분격) (전혀) 마시지 않았다.’

위의 네 예문에 대해 가장 우선적 해석은 (28-a)는 (특정) 차를 마시는 행위의 종료가 기대되었으나 그 기대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질적 부정, (28-b)는 (특정) 차를 마시고 있지 않았다는 행위의 진행에 대한 부정이거나, 차 마시기라는 행위의 습관적 지속에 대한 부정이라는 질적 부정, (28-c)는 마시는 행위의 결과 어느 정도의 차가 소모될 것이 기대되었으나 그러한 소모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양적 부정, (28-d)는 차를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즉, 행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양적 부정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28-a), (28-b)의



대격 NP는 부정의 범위 밖에 있을 수도, 안에 있을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건 질적 부정을 야기함에 비해, (28-c), (28-d)의 부분격 NP는 항상 부정의 범위 안에 존재하며 부정의 범위가 P 범위 내에 들어 있어 양적 부정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NP가 P 범위 내에 들어 있다면 그것을 부분격으로 간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y가 부분격의 명백한 신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문에서 -y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부정 생격”과 부분격이 별개의 것임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핀란드어 부정문에서 (특별한 맥락을 제외하곤) 부분격이 요구되는 점도 이상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Pesetsky나 Franks의 주장처럼 (전형적) 부분격은 그들이 말하는 “양화 생격”과 동일한가? 그들에 의하면, (전형적) 부분격은 공 양화사에 의해 격을 할당받는다. 즉, “Я выпил чаю.”는 “Я выпил ( $\emptyset$ )<sub>Q</sub> чаю.”로부터 파생되며 이때 공 양화사는 “어느 정도의 양”이라는 디폴트적 해석을 받는다. 말하자면, много ‘많은’이나 два стакана ‘두 잔’ 등의 양화사 대신 공 양화사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부분격이 양화적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양화사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II-1의 추론에서 Q Gen(N)이 부분격의 모태였음을 상기하라.) 그러나 양화사를 동반하지 않는 부분격 N과 양화사구의 N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전자는 문장 차원에서 P-운용자에 의해 의미적으로 할당되는 것에 비해, 후자는 구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할당된다. 따라서 양화사구는 문장 차원에서는 양화적이 아닐 수도 있다(각주 17을 보라). Q Gen(N)이 부분격의 모태가 되긴 했지만 много чаю나 два стакана чаю와 같은 양화사구에서 부분격을 신호하는 -y 형태가 사용 가능해진 것, 즉, Q P(N)이 가능해진 것은 чаю가 독립적 부분격의 신호로 사용 가능해진 이후라는 II-1의 추론을 상기할 때, много чаю를 чаю보다 더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공) 양화사 가설은 말과 마차를 뒤바꾸어 놓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공) 양화사 가설의 문제점은 “생격-주제” 구문에 대한 설명의 난점에서도 드러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생격-주제”는 공 양화사를 갖는다. 그러나 “생격-주제”는 그 뒤에 반드시 실 양화사를 동반하므로 공 양화사가 “어느 정도의 양”이라는 디폴트적 해석을 받는다고 보면 모순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Franks(1986)이나 Franks and House는 공 양화사가 뒤에 오는 실 양화사의 상승에 의해 해석되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

장은 “생격-주제” 구문의 기능이 아직 구체적 양이 드러나지 않은 대상에 대해 그 양을 진술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생격-주제”가 P-운용자에 의해 [+P]를 부여받아 부분격을 할당받는 것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다.<sup>29)</sup> 대상에 부여되는 [+P]는 진술이 대상의 양과 관련된 것임을 알려줄 뿐 그 구체적 양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공 양화사 가설은 부분격을 양화사구의 일부로 축소시킴으로써 부분격과 양화사구가 보이는 근본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닌다.

### III-3. 부분격과 상성(aspectuality)

전체와 부분이라는 양화적 관계는 객체-논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술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자에서 그것이 격으로 표출된다면 후자에서 그것은 상성으로 표출되며 이들은 상보적일 수 있다. 부분격 표현 형태는 발달되어 있으나 상성의 표현 형태는 부재하는 핀란드어의 경우 사건 행위의 종결을 함축하는 대격과 대조적으로 부분격은 사건 행위의 지속이나 진행을 함축한다는 지적이 종종 등장한다(위의 예 (18)을 보라). 거꾸로, 체코어와 같이 상성의 표현 형태는 있으나 부분격 표현 형태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흔히 상에 따라 NP 지시체의 닫힘성(boundedness) 및 한정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29) (a) Pili vino. ‘He was drinking (the) wine.’

(b) Vypilp vino. ‘He drank up (all) the wine.’

(Filip, 62면에서 인용)

사건 행위와 그것에 의해 유발되거나 영향을 입는 대상 객체 간에 동형적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격자이론(lattice theory)은 상성과 격 간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설명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격자이론의 요지는 사건 행위가 종료되면 대상 객체도 전체가 영향을 받지만 사건 행위가 부분적이면, 즉, 과정 중에 있으면 대상 객체가 영향받는 정도도 부분적이라는

29) “Девушек было две. ‘소녀들은 두 명이었다.’”는 P((девушк-) Es(было две девушк-))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인영(2000)에서 제시된 것과 비교해 보라.

것이다.<sup>30)</sup>

핀란드어에서 격 선택이 상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Vainikka and Maling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종료]일 경우 대격이 선택되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즉, 그들 식으로는 [-종료]일 경우)에는 부분격이라는 무표적 격이 구조적으로 할당된다. D-구조에 피의체(Patient)라는 상적  $\theta$ -역(aspectual theta role)이 존재하면 대격이, 그렇지 않고 단순히 상태를 나타내는 Mod 역만 있을 경우에는 부분격이 선택된다는 Nelson의 주장도 결국 상성에 의한 격 선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격자이론이 부분격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격자이론은 “Он пил вино.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라는 진행 상황과, “Он выпил вино. ‘그는 포도주를 다 마셨다.’”라는 종료 상황에서 동일한 격으로 표현되는 “вино ‘포도주’”가 서로 다른 해석을 갖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Он выпил вина. ‘그는 포도주를 좀 마셨다.’”와 “Он выпил вино. ‘그는 포도주를 다 마셨다.’”에서와 같이 둘 다 종료된 상황에서 격의 차이가 유발하는 해석의 차이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상을 볼 때, 격자이론에서 말하는 객체의 부분성과 부분격이 갖는 [+P]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종료성 가설을 핀란드어로 국한시킨다 해도 다음 예에서와 같이 (과정이 배제되는) 달성 동사가 사용되어 [+종료]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도 부분격이 가능한 경우는 여전히 난제로 남는다.

(30) a. Hän nosti päänsä. ‘그는—들었다—고개를(대격)’

b. Hän nosti päättään ‘그는—들었다—고개를(부분격)’

(Dahl and Karlsson, 8면에서 인용)

러시아어와 같이 상성과 격이 각각의 표현 형태를 갖는 경우 종료성 가설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러시아어는 핀란드어보다 격 표현이 덜 발달되어

30) 격자이론에 대해서는 Filip을 보라. 전체성과 부분성이 대상 객체와 사건 행위 둘 다를 나타낼 수 있음은 우리말의 “좀”과 “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물을 좀/다 마셨다.”는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 1. ‘나는 약간의 물을 마셨다. / 나는 있는 모든 물을 마셨다.’ 2. ‘나는 물마시기를 약간 했다. / 나는 물마시기를 마쳤다.’

있는 대신 상성의 표현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상과 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 (i) 완료상 + 대격: Я выпил чай.
- (ii) 완료상 + 부분격: Я выпил чаю.
- (iii) 불완료상 + 대격: Я пил чай.
- (iv) \*불완료상 + 부분격: \*Я пил чаю.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어에서 (iv)의 불완료상 + 부분격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놀랍게도, 러시아어의 이러한 제한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종료성 가설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불가능한 것은 (ii)와 (iii)이어야 하므로 러시아어가 예외적이거나 종료성 가설이 적절치 못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객체의 양화적 표현과 행위의 종료간의 불가분성에 있다. P-운용자가 부여하는 [+P] 자질은 대상 NP의 격에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동사의 형태에 표현되는) 상성에 부여되기도 한다. [+P]가 문장에 부여될 경우, II-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상 NP는 동사에 병합되면서 하나의 술부 단위체를 형성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P]는 술부 단위체에 부여된다. 한 단위체에 동일 자질이 두 번 부여될 수는 없으므로 격과 상성이 동시에 [+P]를 부여받을 수는 없다. [+P]가 대상 NP에 부여되면 부분격이 할당되고, 상성에 부여되면 진행이나 지속의 상성을 띠게 되어 러시아어에서는 불완료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P]가 상성과 격에 이중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건에서의 부분성, 즉, 진행과 객체에서의 부분성, 즉, 양적 표현이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다. 사건 행위가 진행 중이면 영향받는 객체의 양이 계속 변화하므로 양을 표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러시아어에서 진행 상성은 양에 대해 무표적인 대격과 함께 나타난다. 한편, 양적 표현은 [-역동성]을 갖는 정황, 즉, 상태에서에서만 가능하므로 사건 행위의 경우 그것이 종료되어 결과적 상태에 이르러야 양적 표현이 가능해지며 따라서 양적 표현은 원칙적으로 완료상과 결합한다. 다음 예들을 비교해 보라.

- (31) a. Я выпил два стакана чаю/чая.  
 — I drank (up) two cups of tea.  
 — 나는 두 잔의 차를 마셨다.

- b. ?\* Я пил два стакана чаю/чая.  
 — ?\* I was drinking two cups of tea.  
 — ?\* 나는 두 잔의 차를 마시고 있었다.<sup>31)</sup>

\*“Я пил<sup>1</sup> чаю.”가 불가능한 이유도 이에 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부분격 NP도 궁극적으로 양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어 부정문에서 불완료상 형태가 부분격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 (28-d)를 보라— 이때의 불완료상이 진행이나 지속이라는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행위를 지칭하는 무표적 형태로서 사용된 것으로 P-운용자에 의해 할당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P-운용자가 있을 경우 [+P]가 NP에 부여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진행 상성과 부분격의 결합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핀란드어에서 부분격의 사용이 지속이나 진행적 해석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종료성 가설을 다시 보자. 위의 예문 (18-a)에 대해서는 “미코는 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뿐 아니라 “미코는 케이크를 좀 먹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Nelson, 141면을 보라). 그렇다면 “부분격 = 진행”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부분격 = [∅ 종료]”로 수정되어야 옳다. 이 점에서, Dahl and Karlsson의 “대격 = 대상의 현저한 변화”라는 주장이나, Nelson의 “대격 = 피의체라는 상적  $\theta$ -역의 존재”라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종료성을 기초로 하면서도 종료성 가설의 경직성을 어느 정도 피해가고 있다. 이 가설들은 종료성 가설이 설명할 수 없는 다음 예들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32) a. Hän ampui suden. ‘그는—쏘았다—늑대를(대격) (=쏘아 맞추었다)’  
 b. Hän ampui sutta. ‘그는—쏘았다—늑대를(부분격) (=조준했다)’  
 (Dahl and Karlsson, 8면에서 인용)

(32-a)와 (32-b) 모두 종료된 행위를 묘사하지만, 전자에서는 기대되는 결과에 도달해 대상이 “현저한 변화”를 겪는 진정한 “피의체”가 되는 반면, 후자는 단지 늑대 쏘기라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할 뿐이다. 부분격이 타동성 약화, 동사와의 병합을 초래한다는 II-3의 지적을 상기할 때, 부분격이

31) (31-b)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두 잔의 차”가 눈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나 “매일”과 같은 부사구가 붙어 습관적 반복의 상황인 경우로서 이 때에는 “두 잔의 차”가 양화성을 잃고 마치 하나의 개체처럼 인지된다.

[-현저한 변화] 혹은 [-피의체] 자질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현저한 변화” 가설이나 “피의체” 가설 역시 예 (33)과 같이 “현저한 변화”나 “피의체”성이 부재하는데도 대격이 할당되는 예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33) Ulla näki valaan. ‘올라<sup>는</sup>—보았다<sup>—</sup>고래를(대격)’

(Nelson, 43면에서 인용)

지각동사의 대상은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초래되지 않으므로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피의체” 상적  $\theta$ -역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sup>32)</sup>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변화” 가설이나 “피의체” 가설은 핀란드어에서 부분격과 진행적 해석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대상의 외연 피표시물이 하나의 개체로서, 동일한 피표시물들로 분리 불가능한 것일 경우—예컨대, 집, 책—, 그리고 동사의 어휘 의미가 진행적 해석을 허용하는 것일 경우, 대상에 “현저한 변화”가 없다는 것, 즉, 영향을 완전하게 입지 않았다는 것은 사건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34) Hän rakensi taloa. ‘그는—짓고 있었다—집을(부분격)’

(Dahl and Karlsson, 2면에서 인용)

동사의 어휘 의미가 진행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경우에는 진행적 해석이 애초에 배제되고 종료적 해석만 가능하므로 “현저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종료는 되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예문 (32-b)). 한편, 대상의 외연 피표시물이 동일한 피표시물들로 분리 가능한 객체—예컨대, 물, 빵, 사과들—인 경우에는 객체가 “현저한 변화”를 겪는 완전한 “피의체”가 아니더라도 행위가 반드시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예문 (18-a)). 이 경우 진행으로 해석될지 아닐지의 여부는 동사의 어휘 의미나 담화 맥락에 대한 고려 등 종합적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을 볼 때, 핀란드어에서 부분격 구문이 반드시 진행적 해석

32) 지각동사 구문에서 대상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하는 사람의 지각 범위에 대상이 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경우 지각동사 구문은 존재구문과 같은 범주로 취급되어 부분격을 취할 수 있다.

을 갖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부분격이 진행적 해석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은 오류이다. 예문 (34)의 “rakensi”는 진행 상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성에 있어 무표적이다. 외연 피표시물의 분리 불가능성, 진행적 해석을 허용하는 동사의 어휘 의미, 진행적 해석을 선호하는 담화 맥락 등의 조건이 만족될 때 비로소 그것은 진행이라는 맥락적 해석을 갖게 된다.<sup>33)</sup> 종료성을 토대로 한 가설들의 오류는 진행적 해석이라는 맥락적 의미와 진행 상성을 혼동한데 있다.

대격을 종료성 가설에서처럼 상성에 의해 할당되는 유표적 격으로 보지 않고 P-운용자가 부재할 때 할당되는 구조적 격으로 보면 예문 (33)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한편, 부분격을 그들의 주장처럼 무표적, 구조적 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P]라는 양화 자질을 갖는 의미적 격으로 보면 왜 부분격이 종료나 그것과 관련된 자질들에 대해 모호한가가 설명된다. 이러한 점은 부분격의 관심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부분격은 행위의 종료나 진행과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종료성 여부가 부분격을 할당하는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종료성 가설을 따르게 되면 핀란드어에서는 [-종료]가 부분격을 할당하지만 러시아어에서는 [+종료]가 부분격을 할당한다는 직관적으로 매우 신빙성 없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실제로 그렇게 보는 예로 Dahl and Karlsson을 보라). 핀란드어 부분격 구문에서 가능한 진행적 해석은 부분격 자체의 자질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격이 객체의 외연적 의미, 동사의 어휘 의미, 담화 맥락과 만나 빚어내는 총체적, 맥락적 의미일 뿐이다. 러시아어에서나 핀란드어에서나 부분격은 P-운용자에 의해 [+P]라는 양화 자질을 부여받아 할당되는 것이지 상성에 의해서 할당되는 것은 아니다.

#### IV. 결론

추상적 격으로서의 부분격은 소유격(소위 “생격”)과는 독립적으로 [+P]라는

33) 객체의 동형의 부분으로의 분리 가능성은 가변적일 수 있다. 예컨대, 케익은 경우에 따라 분리 가능한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진행적 해석을 선호하는 맥락이란 예컨대 예문 (16)에서처럼 “...하고 있을 때”라는 시간부사절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양화 자질을 갖는 의미적 격으로 규정된다. [+P]는 개체의 일부라는 결합적 부분성이 아니라 유형의 화용적으로 비한정적인 일부 구성원이라는 계열적 부분성을 지칭한다. 격에 대한 이러한 의미-기능적 접근은 격을 형태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Jakobson 식의 형태론에 기초한 구조주의적 격 이론이나 “제로 어미 = 주격”에 근거한 “주격 최우선주의”의 약점을 극복해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부분격의 중요성을 회복시키고 부분격 구문과 “부정 생격” 구문, 그리고 존재 (및 비대격) 구문간의 본질적 동질성을 보여 줄 수 있다.

기존의 비한정성 가설, (공) 양화사 가설, 및 종료성 가설은 비한정성, 양화성, 상성이 부분격과 긴밀하게 연계된 범주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어느 한 범주로 국한된 가설들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각 가설들의 가장 심각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격의 비한정성은 화용적인 것으로 비한정성 가설이 주장하는 지시체의 비한정성과는 무관하다. 둘째, 부분격의 양화성은 문장 의미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부가되는 것으로서 (공) 양화사 가설이 주장하는 양화사에 의한 구 차원에서의 구조적 격 할당으로는 부분격 할당을 설명할 수 없다. 셋째, 종료성이 부분격의 할당 요인이라면 부분격이 러시아어에서는 [+종료]일 때, 핀란드어에서는 [-종료](혹은 [∅종료])일 때 할당된다는 비직관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는 부분격의 [+P]가 문장 차원의 P-운용자에 의해 할당된다고 보았다. P-운용자는 양화가 화자의 의도에 포함될 때 선택되어진다. NP가 P-운용자의 범위 내에 있게 되면 [+P]를 할당 받은 NP는 유형의 일부 구성원이라는 계열적 부분성을 띠게 된다. 유형의 일부 구성원은 유형이나 개체와 달리 화용적으로 비한정적이다.

객체 뿐 아니라 사건-행위도 양화성을 갖을 수 있으므로 P-운용자에 의해 [+P]가 상에 부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진행이나 지속의 상성을 띠게 되며 러시아어에서 그것은 불완료상으로 표현된다. 양적 표현은 행위가 종료된 결과적 상태에서만 가능하므로 러시아어 긍정문에서는 불완료상과 부분격의 결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P]를 상과 격에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부분격 NP가 동사에 병합되어 하나의 술부 단위체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상성의 형태적 표현이 부재하는 핀란드어에서 부분격의 사용이 때에 따라서는 행위의 진행이나 지속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격, 객체의 외연적 의미, 동사의 어휘 의미, 그리고 맥락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부분격 자체의 자질과는 무관하다.



이상을 볼 때, P-운용자에 의한 부분격 할당 가설은 기존 가설들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부분격이 보이는 비한정성, 양화성 및 상성과의 연관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에 앞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P-운용자와 상태-존재 운용자(Es-Operator)의 관계이다. 필자는 존재구문 연구(1998)에서 존재구문 NP가 부분격을 갖으며 부분격은 Es에 의해 할당된다고 보았다. Es와 P-운용자가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는 것은 명백하다. P라는 양화 자질이 비(非)항상적 상태에서만 가능한 점이나, 양화되는 객체가 상태의 일부로 병합되어지는 점을 보라. 그러나 이 둘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 방면의 연구가 미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단 이들을 분리시키기로 하였다. “생격-주제”의 부분격은 P-운용자에 의해 할당되지만 “생격-주제” 자체는 Es의 범위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며, “Гремит.”와 같은 무인칭구문의 경우 Es는 있으나 양화될 논항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격-주제”가 그 뒤에 반드시 Es를 갖는 절을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Гремит.”에 숨어 있는 동(同)어근의, 아마도 [+P]를 갖는 논항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Es와 P-운용자 간의 불가분성은 좀더 분명해진다. 이 문제는 추후 좀더 연구되어져야 할 과제이다.

## 참 고 문 헌

- 이인영(1998) “러시아어 존재문 연구 — 의미-화용적 접근”, 『러시아연구』, 제 8권 제 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95-157쪽.
- \_\_\_\_\_ (1999) “러시아어 부정생격구문 연구 — 부정대격구문, 부정주격구문 및 부분(생)격구문과의 비교 고찰”, 『러시아연구』, 제 9권 제 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40쪽.
- \_\_\_\_\_ (2000) “러시아어 ‘생격-주제 구문’ 연구”, 『슬라브학보』, 제 15권 제 1호, 121-146쪽.
- Афанасьев, А. Н.(1978) *Народные русские сказки*,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 Борковский, В. И.(1978) *Истор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интаксис. Простое предложение*, Москва: Наука.
- Иванов, В. В.(1990) *Истор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Просвещение.
- Земская, Е. А. и Л. А. Капанадзе(1978) *Русская разговорная речь. Тексты*, Москва: Наука.
- Кононенко, В. И., М. А. Брицын и Д. И. Ганич(1986) *Русский язык*, Киев: Вища школа.
- Шведова, Н. Ю.(1970) *Граммати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Наука.
- \_\_\_\_\_ и другие(1982)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ом I, Москва: Наука.
- Якобсон, Роман(1958/1971) “Морфологические наблюдения над славянским склонением”, *Selected Writings*, The Hague: Mouton.
- Babby, Leonard H.(1980) *Existential Sentences and Negation in Russian*, Ann Arbor: Karoma Publishers, Inc.
- \_\_\_\_\_ (1986) “The Locus of Case Assignment and the Direction of Percolation: Case Theory and Russian”, in Brecht and Levine, eds.
- \_\_\_\_\_ (1991) “Noncanonical Configurational Case Assignment

- Strategies”, *Corne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9, pp. 1-55.
- Babyonyshev, Maria(1993) “The Acquisition of Russian Case”, *Papers on Case and Agreement II.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19, pp. 1-43.
- Bailyn, John F.(1991) “The Configurationality of Case Assignment in Russian”, *Corne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9, pp. 56-98.
- Belletti, Adriana(1988) “The Case of Unaccusatives”, *Linguistic Inquiry*, vol. 19 no. 1, pp. 1-34.
- Borovikoff, Natalie L.(1997) “Negated Adjunct Phrases are REALLY the Genitive of Negation”, in Martina Lindseth and Steven Franks, eds., *Annual Workshop on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The Indiana Meeting, 1996*, Ann Arbor: Michigan Slavic Publications.
- Brecht, Richard D. and James S. Levine, eds.(1986) *Case in Slavic*, Columbus, Ohio: Slavica Publishers, Inc.
- Chesterman, Andrew(1991) *On Definiteness: A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and Finnis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Chomsky, Noam(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vany, Catherine V.(1975) *On the Syntax of BE-Sentences in Russian*, Cambridge, Mass.: Slavica Publishers, Inc.
- Comrie, Bernard(1986) “On Delimiting Case”, in Brecht and Levine, eds.
- Dahl, Östen and Fred Karlsson(1976) “Verbal Aspects and Object Marking: A Comparison between Finnish and Russian”, *International Review of Slavic Linguistics*, vol. 1 no. 1, pp. 1-29.
- Dixon, R. M. W.(1979) “Ergativity”, *Language*, vol. 55 no. 1, pp. 59-137.
- Filip, Hana(1996) “Integrating Telicity, Aspect and NP Semantics: The Role of Thematic Structure”,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vol. 3, pp. 61-96.
- Fowler, George Hayden(1987) *The Syntax of the Genitive Case in Russian*, Ph.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 Franks, Steven(1986) “Case and the Structure of NP”, in Brecht and Levine, eds.

- \_\_\_\_\_ (1995) *Parameters of Slavic Morphosyntax*, New York: Oxford Univ. Press.
- \_\_\_\_\_ and Richard House (1982) "Genitive Theme in Russian", *CLS*, vol. 18, pp. 156-168.
- Hoeksema, Jacob, ed. (1996) *Partitives*, Berlin: Mouton de Gruyter.
- Holmberg, Anders and Urpo Nikanne, eds. (1993) *Case and Other Functional Categories in Finnish Syntax*, Berlin: Mouton de Gruyter.
- House, Richard Carleton (1982) *The Use of Genitive Initial Sentences for the Specification of Quantity in Russian*, Ph. Dissertation, Cornell Univ.
- Hoop, Helen de (1996) *Case Configuration and Noun Phrase Interpretation*,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Hoover, Aija (1984) "Pragmatic Constraints of Case and Word Order in Finnish: Implications on Definiteness", *CLS*, vol. 20, pp. 192-202.
- Iktonen, Terho (1979) "Subject and Object Marking in Finnish: An Inverted Ergative System and an 'Ideal' Ergative Sub-System", in Frans Plank, ed., *Ergativity*, London: Academic Press.
- Jakobson, Roman (1936/1971) "Beitrag zur allgemeinen Kasuslehre: Gesamtbedeutung der russischen Kasus", in *Selected Writings*, vol. II, The Hague: Mouton.
- Karlsson, Fred (1983) *Finnish Grammar*, Trans. by Andrew Chesterman, Helsinki.
- Klenin, Emily (1978) "Quantification, Partitivity, and the Genitive of Negation in Russian", *International Review of Slavic Linguistics*, vol. 3 no. 1-2, pp. 163-182.
- Kornfit, Jaklin (1996) "Naked Partitive Phrases in Turkish", in Hoeksema, ed.
- Matthews, W. K. (1952-53) "Functions of the West Finnic Partitive Case",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31, pp. 58-73.
- Mel'čuk, Igor (1986) "Toward a Definition of Case", in Brecht and Levine, eds.
- Mitchell, Erika (1991) "Case and the Finnish Object", *Corne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9, pp. 193-228.
- Moravcsik, Edith A. (1978) "Case Marking of Objects", in Joseph H. Green-

- berg, ed.,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vol. 4,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 Neidle, Carol(1988) *The Role of Case in Russian Syntax*,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Nelson, Diane Carlita(1998) *Grammatical Case Assignment in Finnish*,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Paus, Charles(1994) "Social and Pragmatic Conditioning in the Demise of the Russian Partitive Case", *Russian Linguistics*, vol. 18 no. 3, pp. 249-266.
- Pesetsky, David Michael(1982) *Paths and Categories*, Ph. Dissertation, MIT.
- Pulkina, I. and E. Zakhava-Nekrasova(1980) *Russian*, Moscow: Russian Language Publishers.
- Taraldsen, Tarald(1986) "On the Distribution of Nominative Objects in Finnish", in Pieter Muysten and Henk van Riemsdijk, eds., *Features and Projections*,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Thomson, Alexander(1911/12) "Beiträge zur Kasuslehre", *Indogermanische Forschungen*, Strassburg, vol. XXIX, pp. 249-259.
- Timberlake, Alan(1974) *The Nominative Object in Slavic, Baltic, and West Finnic*, München: Verlag Otto Sagner.
- \_\_\_\_\_ (1975) "The Nominative Object in Finnish", *Lingua*, vol. 35, pp. 201-230.
- Toivanen, Jorma(1993) "The Nature of the Accusative in Finnish", in Holmberg and Nikanne, eds.
- Vainikka, Anne(1993) "The Three Structural Cases in Finnish", in Holmberg and Nikanne, eds.
- \_\_\_\_\_ and Joan Maling(1996) "Is Partitive Case Inherent or Structural?" in Hoeksema, ed.
- Vilkuna, Maria(1989) *Free Word Order in Finnish: Its Syntax and Discourse Functions*, Helsinki: Suomalaisen Kirjallisuuden Seura.
- Wexler, Paul(1976) "On the Non-Lexical Expression of Determinedness (with Special Reference to Russian and Finnish)", *Studia Linguistica*, vol. XXX no. 1, pp. 34-67.
- Wierzbicka, Anna(1981) "Case Marking and Human Nature",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vol. 1, pp. 43-80.

Zaenan, Annie and Joan Maling(1990) "Unaccusative, Passive, and Quirky Case", in Joan Maling and Annie Zaenan, eds., *Modern Icelandic Syntax. Syntax and Semantics*, vol. 24, San Diego: Academic Press, Inc.

**Abstract****Partitive Construction in Russian**

Lee, In Young

Partitive Case is defined, independently of Possessive Case (which is usually called Genitive Case), as a semantic case with the property of [+P]. [+P] designates not syntagmatic but paradigmatic partitivity. In other words, [+P] designates not part of an individual referent but a pragmatically indefinite member of a type instantiated in some particular space and time. Such semantico-functional definition overcomes the weakness of Jakobsonian morphology-based structural approach and “Nominative = Zero Case” Hypothesis and extends the capacity of Partitive Construction to Existential and Unaccusative Constructions (including Genitive Negative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with a Genitive-Theme).

Partitive Case interacts with the semantic categories of indefiniteness, quantification and aspectuality. However, Indefiniteness Hypothesis, (Empty) Quantifier Hypothesis, and Completedness Hypothesis, which are based on each of the above-mentioned categories turn out to be unsatisfactory due to their restrictedness and misconception. P-Operator Hypothesis proposed in this paper, on the other hand, can explain the semantic interaction properly, escaping the limitedness of the fore-mentioned hypotheses.

P-Operator is selected by the speaker when quantification constitutes one of his communicative intentions. Quantification may concern not only

entity structure but also event structure. Naturally, [+P] may be assigned not only to NP (and realized as Partitive Case) but also to Verbal aspect (and realized as Durative or Progressive Aspect, expressed in imperfective aspect in Russian). However, simultaneous assignment of [+P] to both Case and Aspect is blocked, because NP is incorporated to V and comprises a single unit of predicate. [+P] in NP and [+P] in verbal aspect are logically incompatible, for the measurement of an entity is impossible when the action is in progress. In Finnish, in some context, Partitive Case seems to imply durative or progressive interpretation. However, it turns out that durativity or progressivity is not the semantic property of Partitive Case but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among denotative meaning of an entity, verbal lexical meaning, contextual consideration, and the Case.

P-Operator and Es(=State-Existential)-Operator are very similar in many ways and may be unified in one. The exact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remains to be clarified.